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동이 대희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 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 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윗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느냐?”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 시험할 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 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 글을 내여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첩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첩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 첩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홍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홍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께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러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췌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은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늪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 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 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를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오?”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 뒷일은 어찌 되고? 다음 권을 볼지어다.

- 허균, 「홍길동전」 -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③ 홍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② ㉡는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④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는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 ②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③ ㉢은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읽기 전 활동

〈보기〉가 주어져 있으나 작품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거나 하는 〈보기〉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홍길동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가 아는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아는 배경지식을 이용해 작품을 빠르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길동이 대희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 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뒷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느뇨?”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 정승의 아들 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 쏘냐?”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길동은 채문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 상좌에 있는 사람이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자신의 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절하지 않고 좌우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포 입은 사람이 길동에게 누구냐고 묻자 길동은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빈당에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에 찾아왔다면서 자신과 시험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 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㉞ 글을 내어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으되 무게 천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철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으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

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이 말을 듣고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을 지어 가지고 길동에게 글을 내어주며 세 가지를 행하라고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선 천 근짜리 돌을 들면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백 근짜리 철관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뛰어넘으면 용맹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인사의 용맹을 자신들 마음대로 못하기에 우리의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하고 써야 하니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들입니다. 활빈당 사람들은 이만큼 강한 인물에게 상장군 자리를 주겠다고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동은 보고 웃더니 바로 이를 행하게 됩니다. 활빈당 사람들은 길동의 용력을 칭찬한 후 길동을 바로 장군 자리로 모시게 됩니다. 길동의 엄청난 능력으로 활빈당의 상장군 자리를 갖게 된 모습입니다.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홍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홍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계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계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왕은 흥 의정에게 많은 길동중에 진짜 길동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정황상 길동이 여러 인물로 분신술을 써 진짜 길동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흥 의정은 길동의 왼쪽 다리에 일곱 점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길동이 다 다리에 일곱 점이 있습니다. 흥 의정은 왕에게 진짜 길동을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이에 매우 화를 내며 모든 길동들에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려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쥔 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은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늪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을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요?”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흥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뒷일은 어찌 된고? 다음 권을 볼지어다.

- 허균, 「흥길동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왕은 금부도사를 명해 모든 길동을 다 물려 보내라고 합니다. 모든 길동은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진짜 길동이 왕 앞에 나타나 절하면서 통곡합니다.

길동은 자신의 아버지가 국은을 입었는데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저버리겠냐고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길동의 신분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속절없이 늪을 수 없다며 군기를 탈취하고, 어위대장을 속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길동은 왕에게 병조판서를 삼 년만 제수하시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병조판서를 제수하게 됩니다.

길동은 병조판서를 얻기 위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던 것입니다. 길동은 이 행위들을 정당화하면서 권력을 달라고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우리가 잘 아는 흥길동전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나타난 내용은 우리가 많이 보던 내용은 아니기에 아는 지문이라고 너무 날림으로 읽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으니,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이 나타난 것을 보고 소년은 어디에서 왔으며 성명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신은 흥 정승의 아들이고 활빈당에서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에 힘을 자랑하고자 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활빈당 무리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힘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흥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흥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을 듣고 길동의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다고 일곱 점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길동에게 빨리 나와 자신을 보라고도 합니다. 이를 보면 흥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명령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무수한 길동은 흥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면서 강녕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길동은 상에게 가서 자신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군기를 탈취하고 어위대장을 속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길동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 시험

㉡ 글

㉢ 상장군 자리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길동은 활빈당 사람들에게 자신과 ㉠ 하자고 합니다. 그 후 활빈당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고 활빈당 사람들은 길동을 인정해 장군 자리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② ㉠은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활빈당 사람들은 ㉠을 주면서 이를 행할 것이냐고 길동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힘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지,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③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활빈당 사람들은 길동에게 ㉠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적힌 과제를 통과하면 ㉡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는 활빈당의 장군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동의 자아실현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종락 이후의 부분을 보면 길동은 신분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길동의 자아실현은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을텐데, 활빈당의 장군이 되는 것은 이러한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는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 길동은 ㉢ 때문에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길동은 ㉠에 적힌 것을 손쉽게 수행해 활빈당의 장군이 됩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 뒷일은 어찌 되고? 다음 권을 불지어다

— <보 기> —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이 <보기>는 여러 이본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보기>입니다.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추가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등 여러 변형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이 길고 새로운 내용이 많기에 <보기>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 <보기>에서 길동이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작품의 흥미를 높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은 바로 활빈당을 이끄는 수령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가된 인물을 통해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은 길동이 힘이 아주 강력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이전에는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은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은 길동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보기>를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보기>에서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해 원하던 바를 얻는 것이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 이 부분에서 말하는 왕에게 직접 요구해 원하던 바를 얻는 길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 ㉠은 뒷일을 보려면 다음 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해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